완주군, 으뜸자족도시 도약 박차

박성일 군수, 2017 주요업무 계획 · 신규시책 보고회 발빠르게 착수

완주군이 '2017년 주요업무 계획 및 신규시책 보고회'를 갖고 대한민국 으뜸 자족도시 도약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민선 6기 후반기를 맞이한 시점에서 지난 7일부터 박성일 군수주재로 열린 이번 보고회에서는 완주군의 3대 핵심정책 '모바일(일자리), 르네상스(삶의질), 농토피아(농업경쟁력) 완주'을 가속화하고 2대 중점과제인 어르신 복지지원과 미래세대를 위한 생활시책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완주를 만들어 갈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군은 따르면 2017년 완주군정은 일자리창출,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테크노밸리 2단계 조기착공, LH 삼봉지구 등 15만 자족도시의 기틀마련과 완주 공공경제 프로젝트, 식품, 먹거리 정책, 청년미래세대 지원을 위한 청년정책, 문화예술광광도시 완주 등 완주군 신 성장 동력 창출에도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완주군은 내년도 시책 발굴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군민 아이디어 공모전과 공무원 신규시책 발굴을 통해 총 240여건의 제안을 모집했다.

이를 바탕으로 참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즉시 사업화 추진하고, 기타 제안된 시책사업에 대해서도 전문가 자문과 타당성 보완을 통해 연차적 시책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2017년은 10만 완주시대를 위한 변화와 혁신의 해로써 완주군 발전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리고 군민들의 행복한 삶과 희망찬 미래를 실현시키기 위해 2017년도 업무계획수립과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중복 기자

장수군, 상수도 현대화사업 선정

사업비 203억원 투입 노후관 87km 교체사업 추진

장수군이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노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공모사업에 확정됐다.

이에 군은 그동안 100% 군비를 투입해 추진하던 노후관망 정비사업을 2021년까지 5년간 총203억원의 50%인 102억원을 국비로 지원받게 됐다.

장수군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상수도관을 87km에 이르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노후상수관망을 적기에 정비하지 못해 누수율이 21%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 가뭄으로 인한 물 사용량 급증으로 군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군은 2017년부터 국비 102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203억원을 투자해 블록시스템구축사업, 노후관망정비사업, 유지관리시스템구축사업, 누수탐사정비 등 노후관 87km 교체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용득 장수군수는 "노후상수관망 정비 사업추진으로 누수저감은 물론이고, 그동안 녹물과 단수 등으로 불편을 겪어왔던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로컬플러스

무주산림조합, 산머루 수매

무주군산림조합(조합장 김대웅)은 7일 2016년도 산머루 200톤을 수매할 계획을 발표했다.

산림조합은 9일 오후2시 산머루 수매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9일과 12일까지 2일간에 걸쳐 임가농의 수매신청서를 받아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산머루 수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산림조합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품질 좋은 산머루 200톤을 수매해 재배 임가의 안정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산머루 유통체계를 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대웅 조합장은 "무주에서 생산한 산머루의 품질이 전국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임업인이 임산물 생산과 품질향상에만 전념할 수 있는 유통체계를 만들어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공용시설 배치계획 수립

보건소 · 공공도서관 · 소방서 · 문화체육센터 등

완주군이 조성을 본격화한 삼봉 공공주택지구가 명품 주거단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용시설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7일 완주군은 삼례읍과 봉동읍 일원 91만5,000여㎡에 오는 2020년 8월까지 아파트 5,649가구, 단독주택 2,57가구 등 총 5,906가구가 들어서는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이 본격화된 만큼, 각종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비해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 배치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개발 완료시 16,000여명의 인구유입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군에 따르면 입주시설은 LH공사, 유관기관 및 실과소 등과의 수요조사와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

공공시설의 경우 완주소방서와 파출소를 비롯해 군의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공원사업소, 도서관 등이다.

또한 보훈회관·육아지원종합센터·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문화체육센터·장애인체육관 등 체육시설과 로컬푸드직매장·농가레스토랑·공용주차장 등도 들어서게 된다.

특히 군은 공용시설 배치계획 수립을 통해 각 시설의 용도와 이용 동선에 맞게 입지와 배치를 개방적이고 집적화해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배치계획은 오는 10월 조성공사 기공식 이전,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춘식 경제안전국장은 "공공기관과 문화체육 및 생활편익시설을 충분히 확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며 "또한 자족기능과 정주기능을 확보해 완주군 신중심 도시로의 도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진안군은 '추석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다.

진안군, 추석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자매결연지 소비자 대상

진안군은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7일부터 서울, 인천 등 대도시 자매결연지에서 '추석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서울장터'와 서울시 도봉구청과 강동구청 앞마당에서 열리는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인천 남동구에서 주최하고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열리는 '추석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에 참여하여 추석 선물과 먹거리 준비를 위한 진안 농특산물을 선보인다.

군은 그동안 추석과 설 명절, 지역축제 때마다 자매결연지와의 직거래장터를 개설하여 우수한 농특산물을 공급하고 도시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상생을 도모해 왔다.

이번 행사에도 수삼, 홍삼, 더덕, 도라지, 표고버섯, 생강차 등 진안의 특산품을 출하하는데 참여농가는 "추석맞이 직거래 행사에 해마다 참여하고 있는데 단골고객이 언제 오는지 문의 전화가 오기도 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군 관계자는 "추석맞이 직거래행사 외에도 자매결연지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진안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규제개혁 교육 실시

장수군은 7일 장수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군청 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6년 규제개혁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정부의 규제정책 공유와 규제개혁을 위한 지방공무원의 역할을 이해하고 규제개혁 추진력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이날 임택진 강사(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수석전문위원)는 '규제개혁 국정방향과 지방공무원의 역할'을 주제로 정부의 2016년 규제개혁 전략을 소개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규제개혁을 알기 쉽게 설명해 공무원의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장수=고판호 기자

아토피 피부염, 이제는 이겨낼 수 있어요

진안군, 체험캠프 진행 천연 보습제 만들기 등

진안군은 아토피 피부염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6일부터 8일까지 아토피 천식 안심어린이집 2개소 150명 어린이를 대상으로 전북권 환경성질환치유센터에서 '아토피 피부염 체험캠프'를 운영했다.

극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환경성질환인 아토피피부염은 전 인구의 5~15%에 달할 정도로 증가추세에 있고, 특히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에게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만성적인 질환이다.

이번 아토피 체험캠프는 아토피 피부염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부관리를 위한 천연 보습제 만들어보기와 천연 비누 만들기, 환경호르몬의 유해성을 바로 알기 위한 천연 염색양말 만들어보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운영으로 보다 효과적인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과학적인 접근 관리법이 가정과 어린이집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 진행 했다.

또한 청정 진안에서 생산되는 싱싱한 먹거리로 만든 간식과 아토피 밥상을 통해 아토피 아동과 일반아동 모두에게 우리 먹거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군 관계자는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켜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자기관리 능력 강화를 위해 아토피 체험프로그램, 정서지지 프로그램, 환경교육 등 체험 위주의 아토피 캠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아토피 없는 진안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주 이서면, 복지허브화 추진상황 모니터링 실시

완주군 이서면이 보건복지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전국 확산을 위해 복지허브화 추진상황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전북발전연구위원의 연구위원과 이서면장, 맞춤형 복지팀, 복지행정팀이 이서면을 방문해 복지허브화 추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주 모니터링 내용은 지난 3월 17일부터 복지허브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서면의 사례를 바탕으로 개편된 전달체계와 현장실무 적절성, 조직 및 인원 구성현황, 맞춤형복지팀과 복지행정팀의 업무 협력관계, 관내 민·관 협력 상황 등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이 이뤄졌다.

모니터링결과 이서면은 희망지기 및 준사례관리사 운영을 비롯한 민·관 협력부분,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행정팀 직원의 배치, 통합사례관리사 파견, 민간인력 협조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복지대상자 대비 기존 복지팀의 인원부족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회정 이서면장은 "맞춤형 복지팀 신설 후 복합적인 사례관리가 가능해졌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실적도 늘었으나, 직원 부족에 따른 업무 과중의 문제가 남았다"며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차원의 대응방법 모색 등 다각도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무주경찰 반디폴 청렴동아리 '선물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

무주경찰서(서장 최성규) 청렴동아리 반디폴은 7일 오전 7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경찰서 정문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절 선물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직원들 사이에서 명절선물을 주고받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없애고 건전한 추석 명절을 맞이하자는 의미로 진행됐다.

무주서 직원들로 구성된 반디폴 청렴동아리 회원들은 '청렴한 무주경찰은 선물을 안주고 안 받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플래카드를 들고 캠페인을 벌였다.

반디폴 청렴동아리는 이를 통해 다시 한 번 부정부패 척결과 청렴의 의지를 다지며 공정한 업무수행에 정진할 것을 결의했다.

김유창(경위) 청렴동아리 회장은 "작은 선물도 청탁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명절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불필요한 선물을 주고 받지 않도록 청렴동아리가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군, 추석명절 비상급수 · 긴급복구반 운영

완주군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긴 연휴기간 동안 단수 사고 예방 및 긴급사태에 대비해 비상근무 체계에 들어간다.

완주군 상하수도사업소는 급수취약지역인 고지대 및 관말지역의 상수도 시설물에 대해 지난 8월부터 사전점검을 시행해 명절 연휴기간 예상치 못한 단수사고를 예방하고자 폭염속에서 진땀을 흘렸다.

그동안 상하수도사업소는 폭염속 생활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난 9월5일까지 배수지 8개소, 가압장 21개소 및 마을상수도 196개소, 하수처리장 33개소에 대해 점검을 완료하고, 오는 추석명절기간 '비상급수 및 긴급복구 계획'을 수립, 대책반운영 및 비상급수 지원계획을 점검하는 등 5일간의 연휴기간 동안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비상급수 및 긴급복구 대책반 운영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비상급수대책 공조체계를 사전에 구축하고 아울러,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체를 중심으로 긴급복구 대책반도 편성·운영하는 등 복구장비와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있다.

김종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연휴기간 중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이 고향의 품에서 즐거움이 가득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비상급수 및 복구대책반을 운영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무주경찰서 부남파출소 금융기관 대표자 간담회

무주경찰서(경찰서장 최성규) 부남파출소(파출소장 양석호)는 7일 추석연휴를 대비 특별방범활동의 일환으로 부남우체국과 부남농협 등 관내 금융기관 대표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융기관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명절 전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강도, 날치기 등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CCTV 등 방범시설 및 경비인력 등 자위방범태세 점검하고 취약요소를 보강토록 당부하는 한편 농협 등 금융기관을 찾는 어르신들에게도 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활동을 벌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환경배출업소 특별단속 실시

51개소 사업장 대상

진안군은 지난 6일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51개소를 대상으로 9월말까지 예고 없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점 점검사항은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 사항과 일치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운영 실태(고장방치등), 오염물질 누출여부, 측정기기 적정 설치·운영여부, 방지시설 운영일지 기록상태, 차가측정이행여부, 행정처분 이행상태 등이다.

업종별로는 육류가공, 건강식품제조, 재생플라스틱제조, 폐기물처리, 세차업, 김치제조, 발효식품 제조, 철골조립, 레미콘, 막걸리제조, 섬유염색가공, 인삼식품제조, 세차업 등 다양하다.

특히 대기분야 주요점검 배출시설허가증에 등재되어 있는 방지시설별 배출시설과 사업장 현장에 설치 가동중인 배출시설을 비교하여 일치여부 확인, 배출시설설치 허가증 상에 기록되어 있는 방지시설의 용량과 자가측정 기록지에 명시된 풍량과의 비교확인 등을 확인한다. /진안=우태만 기자